“손흥민처럼 훌륭한 축구선수 될래요”

2 FC서울 유소년축구 유망주 김 도 윤 군 가족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프로축구 FC서울은 2013년부터 ‘Future of FC서울 유소년축구아카데미’를 통해 저변 확대와 함께 유망주 발굴 및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다문화 및 저소득층 자녀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서울 시내 32개 구장에서 운영되는 올해 축구교실 참가 인원은 5600여명이다. 첫 해 4800명보다 많이 늘었다. 그 중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등록 수는 150명가량이다. 중국과 일본이 많지만 베트남이나 러시아, 몽골, 캐나다, 파키스탄, 대만 등 출신지는 다양하다. 이들은 한국 어린이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체계적인 축구교육도 받는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도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K리그 명문 FC서울 유소년축구아카데미에서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의 꿈을 키워가는 공항초 5학년 김도윤(위 사진) 군은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다. 일본인 어머니 오오니시 미소노(맨 왼쪽)씨와 김 군, 한진실 코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아래 사진). 최현길 전문기자·사진제공 | FC서울

축구 꿈나무 아들 김도윤 군
축구경기가 멋있어 축구 좋아하게 돼
친구들과 뛰다보면 서로 마음이 통해
한일전? 음… 한국을 더 응원할래요

FC서울은 커리큘럼 개발 등 교육을 전담하고, FC서울의 파트너사들은 유니폼과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연고지 지자체와 프로축구단, 그리고 기업이 결합된 이런 방식은 민관이 함께 뜻을 모은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FC서울은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동아일보가 주최한 동아다문화상 사회공헌부문 단체상을 수상했다.

● “손흥민 같은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가랑비가 흩뿌리던 지난 7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유석초등학교를 찾았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20여명의 어린이들이 우르르 운동장으로 몰려들었다. 축구교실 5학년 심화반에서 운동하는 어린이들이다. 여기서는 출신 구분 없이 함께 운동한다. 어둠이 내려앉자 조명이 하나 둘씩 켜졌다. 초등학생들에겐 다소 늦은 시간이 아니냐고 묻자 이들을 가르치는 한진실 코치(31)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바쁘다. 각종 학원을 돌다보면 이 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서 김도윤(11)군을 만났다. 공항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다. 아버지가 한국, 어머니가 일본 출신이다. 어머니가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한국에 거주해 우리말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어머니 오오니시 미소노(41)씨는 “전에 살던 동네에서도 축구교실에 다녔는데, 지인이 다문화 어린이들도 FC서울에서 운영하는 축구교실에 지원할 수 있다고 알려줘서 다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도윤이는 어릴 때부터 몸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해 축구를 택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다가 오래하다 보니 축구를 더 좋아하게 됐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한다”고 소개했다. 3학년인 동생도 형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취미반에 등록했다. 이곳에서는 180명의 취미반과 70명의 심화 및 프로반이 있다. 취미반은 주 1회, 심화반은 2회, 프로반은 2~3회 운동한다.

김 군은 “어릴 때 축구경기를 보다가 너무 멋있다고 느껴 그 때부터 축구를 가장 좋아하게 됐다”며 씩씩하게 얘기했다. 장래 희망을 묻자 “손흥민도 좋고, 메시도, 호날두도 모두 다 좋아한다. 경쟁이 심하겠지만 그들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며 마냥 신이 났다. 김 군의 장점은 스피드고, 포지션은 윙어 또는 윙 백이다.

● “축구는 친구를 더 깊이 사귈 수 있게 해준다”

축구교실은 배움터다. 신체 발달은 물론이고 경기를 하면서 자신감도 키울 수 있다. 또 동료들과 함께 해야 하는 협동심과 나눔, 그리고 규칙을 지켜야하는 사회적인 약속, 상대를 존중해야하는 페어플레이 등은 축구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다. 어릴 때 이런 걸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하다.

김 군은 축구교실의 장점으로 “다른 데서 운동하는 것보다 훈련을 집중해서 받는다. 또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코치님은 내가 잘 안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지적해준다”면서 언제나 축구교실 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했다.

다문화 어린이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이에 대해 김 군은 “친구들과 차이점은 전혀 못 느낀다. 축구를 하다보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깊이 사귈 수 있어 좋다”며 엄지를 내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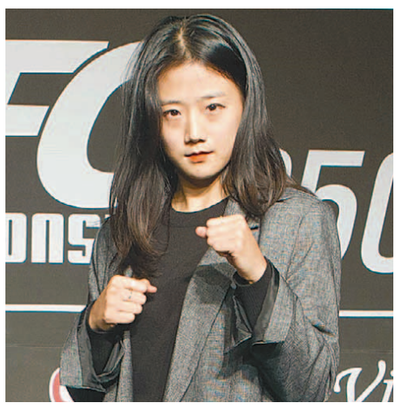
일본인 어머니 오오니시 씨
이제는 본격적으로 선수 되고 싶어해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고 기죽지 않죠
팀서 가장 힘차게 파이팅…보기 좋아

김 군의 어머니는 “도윤이는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고 스스럼없이 소개할 정도로 친구들과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면서 “원래부터 성격이 활달하고 친구를 잘 사귄다. 그런데 축구를 통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팀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 도윤이가 가장 힘차게 파이팅을 외친다.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게 보기 좋다”고도 했다.

한진실 코치는 “외모가 많이 다르면 처음에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또 소극적인 성격의 학생은 스스로 벽을 쌓기도 한다”며 “하지만 축구는 이런 한계를 뛰어 넘게 해준다. 경기를 하다보면 그런 차이가 없어진다. 그래서 축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뿌듯해했다.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묻는 것처럼 김 군에게 국가대표팀간 경기를 할 때 한국과 일본 중 어디를 응원할 것인지 물었다. 처음에는 둘 다 응원할 것이라며 살짝 빼더니만 재차 묻자 어머니 얼굴을 잠시 쳐다보더니 “한국을 조금 더 응원하겠다. 아빠도,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이에 어머니는 “동생(김형윤)이 일본팀 응원하면 된다”며 웃었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



이수연은 12월 15일 그랜드힐튼 서울에서 열리는 XIAOMI 로드FC 051 XX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사진제공 | 로드FC

‘미녀 파이터’ 이수연 “외모 아닌 실력으로”

내달 15일 로드FC 051 데뷔전

ROAD FC ROAD FIGHTING CHAMPIONSHIP

MBC ‘겁 없는 녀석들’ 출신의 이수연(24·로드짐 강남MMA)이 로드FC 데뷔를 앞두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이수연은 12월 15일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열리는 XIAOMI 로드FC 051 XX에 출전한다. 이수연의 상대는 ‘여고생 파이터’로 이름을 알렸던 이예지(19·팀 제이)다.

이수연은 지난해 로드FC와 MBC가 제작한 지상파 최초의 격투 오디션 프로그램 ‘겁 없는 녀석들’에 출연했다. 예쁜 외모에도 패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이수연은 훈련 도중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도전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차했다. 일상으로 돌아온 뒤 훈련에 열중했고, 로드FC 정식 데뷔할 기회를 잡았다. 1개월 후 꿈에 그리던 MMA 프로 선수가 된다.

지난 2일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XIAOMI 로드FC 051 XX 기자회견에서 이수연은 경기 발표와 동시에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 상대인 이예지도 참석했다.

이수연은 “드디어 꿈꾸던 데뷔 무대를 갖게 됐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경기를 뛰게 해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첫 경기인 만큼 많이 준비해서 화끈한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모 보다는 실력을 보여드리겠다. 이예지는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경력과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브랜딩의 힘으로…커뮤니티, 시장이 되다

17일 지역문화 시장창출 포럼 개최

때깔 빛깔 맛깔 다함께 깔깔깔깔

“지역문화를 위한 시장을 창출하라”.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이사장 김석은·이하 조직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18 지역문화 시장창출 포럼이 17일 서울 서소문동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살리고 지역문화 활동가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2017년부터 ‘때깔 빛깔 맛깔, 다함께 깔깔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문화 기획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가를 발굴 및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날 포럼은 ‘우리가 지역에서 시장을 만드는 법’이 주제다. 전국 각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획자, 활동가들이 참여해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브랜딩의 힘’, ‘커뮤니티가 시장이 되다’의 두 가지 테마를 놓고 강연과 라운드 토크를 진행한다.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브랜딩의 힘’ 세션에서는 브랜딩·PR전문가가 발제를 맡는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개개인의 열망과 의지를 반영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장소와 공간을 만드는 디자인그룹 Z-Lab의 이상묵 대표가 ‘소비자 경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브랜딩’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공공부문 PR 마케팅 전문회사 베티카의 류왕보 대표가 ‘일본지역도시의 리브랜딩을 통한 시장창출사례’ 발제로 포럼을 이어간다.

‘커뮤니티가 시장이 되다’ 세션은 라운드 토크로 진행된다.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지역문화활동가들이 함께 한다. 이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커뮤니티를 응집시키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좌담에는 이보은 마르쉐@ 기획자, 곽재원 서울인기페스티벌 기획자, 안진나 HOOLA 대표, 김서희·정욱교 부산공동체라디오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온오프믹스(onoffmix.com/event/157964)에서 사전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상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kcoc.or.kr)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직위의 김예찬 팀장은 “재단의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문화활동의 자생력을 기르는 지속가능한 문화사업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현장의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껴 실질적으로 활동가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럼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